

문화산책

한국영화를 읽고 보고 느끼면서 위기를 고민한다

박기복

영화감독



영화를 읽고 보고 느끼면서 고민하기에 앞서 '영화란 무엇이며 영화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궁금증부터 풀어보고자 한다.

영화는 스토리, 연기, 과학, IT 기술, 산업, 컴퓨터 그래픽, 장비, 촬영, 소품 등 다양하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압축시켜 틀을 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영화 언어인 시나리오로 발전시킨다.

영화는 스토리, 연기, 과학, IT 기술, 산업, 컴퓨터 그래픽, 장비, 촬영, 소품 등 다양하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압축시켜 틀을 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영화 언어인 시나리오로 발전시킨다.

영화는 스토리, 연기, 과학, IT 기술, 산업, 컴퓨터 그래픽, 장비, 촬영, 소품 등 다양하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압축시켜 틀을 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영화 언어인 시나리오로 발전시킨다.

영화는 스토리, 연기, 과학, IT 기술, 산업, 컴퓨터 그래픽, 장비, 촬영, 소품 등 다양하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압축시켜 틀을 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영화 언어인 시나리오로 발전시킨다.

영화는 스토리, 연기, 과학, IT 기술, 산업, 컴퓨터 그래픽, 장비, 촬영, 소품 등 다양하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압축시켜 틀을 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영화 언어인 시나리오로 발전시킨다.

기고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봄의 시작은 언제나 새롭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시작을 꿈꾼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일상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해 곳곳에 서려 있다.

한반도는 과거부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였다. 특히 서해 5도는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와 중국, 북한 그리고 일본이 맞닿아 있는 전략적 해역으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해와 서북 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영화는 읽는다는 것은 소설을 읽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뇌를 작동시킨다. 즉 이미지를 이야기 정보로 바꿔 감독의 시점에서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대사나 심리, 신(scene)과 신(scene) 사이의 공간을 나름의 조합과 해석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영화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객은 처음부터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나름의 방식으로 영화를 대하는 루틴이 있다. 마음의 부담을 버리고 영화를 본 후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편하고 자유롭게 보면서 느낌 그대로 받아들인다.

영화의 느낌을 받고 보는 방식은 달라도 관객은 싫든 좋든 영화의 느낌을 받기 마련이다. 영화 OST를 통해 그 영화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배우 연기를 통해 광팬이 되기도 하고 영화 곳곳에 배치한 절묘한 미장센(Miseenscene)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이렇듯 영화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이상 휴식과 위로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한순간일지라도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각인되어 가끔 재생시켜 보는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영화 관객들에게 영화 읽기를 한 번쯤 권하고 싶다. 영화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했을까봐도 감독의 시점에서 영화를 관망하게 된다면 뜻밖의 재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런데 칸을 넘어 세계영화를 이끈다는 K-무비가 위기에 빠졌다.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팬데믹 이후로 바다를 건너 극장 관객 수는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반 토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봉 시기를

잡지 못한 몇몇 작품의 개봉 일정은 여전히 요원하며 이로 인해 새롭게 제작되는 작품수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물론 팬데믹 이후 일정 부분 1000만 관객 돌파 영화들이 쏟아진 성과도 있었다.

'범죄도시' 시리즈, 오컬트 영화로서 최대의 성과를 낸 '파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서울의 봄'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관객 수는 1억 2313만명이었으며 특히 한국영화 관람객은 7147만명으로 전년 대비 17.6% 올랐다. 그러나 세부지표에서는 지난해 평균 관람 횟수, 극장 수, 스크린 수가 모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한국영화의 수익률은 -16.4%였다.

2025년 한국영화제작현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알 수 있다. 2025년 한국영화 제작 편수는 약 25편이다.

그 틈을 극장 방문보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화 시청을 선호하는 관객 소비자는 늘어나고 한국영화 산업의 침체는 더 깊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CJ CGV는 최근 '2025, 2026 한국아구위원회(KBO) 리그 단독 생중계 및 프로모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극장에서 영화 대신 야구 중계를 하는 서글픈 영화 산업의 현주소를 영화 관객들은 지켜보고 있다.

관객들의 소비 패턴은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계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공식에 기대고 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에 비례해 수백억 제작비가 투자되는 블록버스터와 대작 중심의 전략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지혜가 필요하다.

서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가 서해의 안보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비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전투기 비행사 위, 포사격 등 무력도발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위협이 단순한 군사적 도발을 넘어 우리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해 5도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북간 국지적 교전이 발생해 대한민국 군장병과 국민이 희생된 유일한 지역이다. 198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우리 군은 목숨을 걸고 서해를 수호했다. 그 과정에서 55명의 전사자를 비롯해 다수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들의 희생과 함께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서해바다를 굳건히 지켜왔다.

서해수호의 날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호국의 날'이던 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국토 수호와 안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0년 당시 천안함 사

건이 발생했던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광주 지역에서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허서정우 하사의 흉상이 있는 문성중학교에서 광주지방보훈청 주관으로 자체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성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서정우 하사 흉상 참배, 추모의 리본 만들기를 등 서해수호 55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운명을 던진 서해수호 용사들의 헌신과 용기, 그리고 가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일상의 뿌리가 되고 있다.

오늘도 서해 바다는 고요하기만 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독자투고

봄철 산불, 예방이 최선이다

길고 길었던 추위와 짝짝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매화꽃과 산수유꽃 등이 만발하는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다.

따뜻해진 날씨로 꽃놀이 등산, 마루였던 예초를 하는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부주의한 산불·들불 화재가 생기기 마련이다.

경상도쪽에서 시작된 산불 역시 예초기 사용과 성묘객이 묘지 정리 도중 실수로 불을 내 동시 산불로 현재까지 3286ha의 산림이 불탔다. 소방헬기 99대가 불끄는데 동원되고 있으며 소방대원은 5000여명이 동원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4명의 공무원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산불로 인해 큰 인명·재산 피해가 있지만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로 훼손된 자연은 복구되기까지 수백년이 걸리며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대기오염,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산불을 반드시 기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산불이 진화되고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라고, 우리 국민 모두 산불 화재 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손민기 전남경찰청 기동수출대 경사

사설

사상 최악 대형산불이 '인재' 때문이라니...

대형산불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경남, 경북, 울산, 강원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이 강풍 등에 의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중대형 산불로 확산되면서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산불 피해 규모 또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현재 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대피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번 산불로 3만 6009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며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 피해 면적(2만 3794ha)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또, 주택과 공장, 문화재 등 시설 325곳이 피해를 입었고, 3만7000여명이 대피했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를 가져온 산불이 자연재해가 아닌 모두 인재라는 데 있다.

지난 21일 발생 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 산불은 농장주가 예초기를 사용하다 불씨가 튀어 실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잇따라 계속되고 있는 경북 의성, 경남 김해 산불은 성묘객 실화, 울산 울주 산불은 농막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을 발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람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전국의 산들이 회색불능의 상태로 빠진 것이다.

실제로 산림청이 지난 10년간(2015~2024년) 발생한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무려 1862건으로 3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715건), 논·밭두렁 소각(667건), 담뱃불 실화(338건)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193건의 산불이 발생, 입산자 실화가 72건(37.3%)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책임자를 밝혀내기 어려운 기타(원인 미상, 담배꽂초 등)도 66건(34.2%)이나 됐다.

이에 따라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처벌 규정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산불예방교육, 산불 감시시스템 구축, 조기진화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예방책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흥군 '유학마을' 성과 눈에 띄네

장흥군 장평면의 작은 농촌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젊은 세대의 진출 등으로 노령층만 주로 살던 이곳에 최근 유학마을이 들어서면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폐교 위기에 몰렸던 작은 학교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여기에는 장흥군과 장흥교육지원청 등의 공이 컸다. 먼저 장흥군은 지역 작은학교 신입생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장평 임리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농산어촌유학마을을 조성했다.

이는 기존에 운영했던 농가주택 활용 '유학주택'이 좁고 노후한 데다 인터넷 통신 속도 또한 느려 온라인 강의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다 보니 조성된 마을은 철저히 가족 체류형 유학생 가구 거주용으로 만들어졌다. 주택 내부에 TV·냉장고·책상·의자 등 유학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갖춰 놓은 것이다. 간편하게 이사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장흥교육지원청도 지난해 12월,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농산어촌유학 장흥 캠프를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며 장흥 유학생활의 유익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들의 노력은 올해 수도권 등에서 이주해온 10가구 34명이 유학마을에 입주하는 성과를 냈다.

이제 장평면 전체 유학생 가정은 13가구에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6명 등 18명으로 늘었다. 이는 장평면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서울·경기·인천 9명, 충남·대전 2명, 광주 2명 등에서 전학온 학생들은 현재 장평초와 장평중에 재학 중이다. 학생 수 감소를 겪던 이들 학교의 전교생이 현재 각각 23명·2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학교 유지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학 가정'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활동과 취미생활을 적극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학 생활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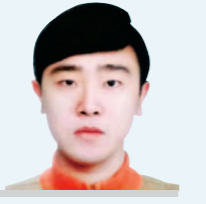
장흥군은 장평면 우산리에도 5가구 규모의 유학마을을 내년 입주 목표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 유학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날이 기대된다.

취재수첩

의대생들 하루빨리 교육현장 돌아오길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광주지역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전남대학교는 지난 24일까지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을 받았지만, 그 수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교육현장을 떠난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마동조차 없는 상황이다.

조선대학교는 당초 27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마감일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지만 하루 사이에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배 의료인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관철하려는 의지는 높게 사지만,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제는 돌아올 때라 입을 모은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들에 대해 "투쟁 정신은 존중하지만, 지금은 숨을 고를 때"라며 "미래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앞모습이 염려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대학병원 교수도 "학교로 돌아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우려스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의료시스템의 문제도 걱정된다.

매년 우수한 의료인이 육성됐지만, 2년간 인재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려울 정도로 선진화된 지 오래다. 그 기간인 우수 인력 배출이 흔들리지 않게 하루빨리 의대생들이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 rates.